

職業能力開發研究  
 第14卷(3), 2011. 12, pp. 233~258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 4년제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결정요인 분석\*

이 영 민\*\* · 임 정 연\*\*\*

본 연구의 목적은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패널 자료에서 파악된 2,015명의 대학원 진학자들이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연수 등 개인 및 가족변인에 따라 대학원 진학여부에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기타 지역에 비하여 대학소재지가 서울일수록 대학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 전공생일수록,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에 만족할수록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셋째, 대학원 유형별(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진학자들의 개인 및 가족, 출신대학 특성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일반대학원 진학자의 경우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 비해 공학, 자연계열 전공자들이 비슷한 전공을 따라 동일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고, 특수대학원의 경우 타 대학원 비해 다소 연령이 높고, 직장에 재직 중인 시간제 학생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전문대학원의 경우 가구소득과 부모의 높은 교육연수 등 가족관계 변인에 영향을 받는 가능성이 높았다.

- 주제어 : 대학원 진학, 진학 결정요인,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투고일: 2011년 10월 31일, 심사일: 11월 07일, 게재확정일: 12월 26일

\* 본 연구는 2011년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을 기초로 재분석, 수정한 것임.

\*\* 제1저자,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부교수 (ymlee@sookmyung.ac.kr)

\*\*\* 제2저자,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원 (jungyon82@naver.com)

## I.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층의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에 따른 인적자원의 유희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매년 8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에 반해, 2010년 상반기 청년실업률은 8.6%로서 경제활동인구조사 평균 실업률의 2.7배에 이르고 있고(한국교육개발원, 2010), 전반적인 고용침체와 더불어 청년층의 약 23.0%가 구직활동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 애로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청년층을 위한 신규 고용창출도 미비한 상황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와 같은 극심한 취업난에 따라 4년제 대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대의 경우 학부 졸업생의 34%가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중 취업난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직을 유예하고 적절한 취업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았다(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2010). 즉, 취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대와 동시에 학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늘고 있으며(진미석, 2006), 그에 따른 결과로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학원 진학을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고급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자 핵심인재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투자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Bedard & Herman, 2008). 개인에게 체화된 지식, 기능, 태도, 건강 등이 향후 경제적인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인적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대학원 진학을 재조명하고 있다(강순희 · 윤석천 · 박성준, 2011).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원 교육을 단순히 미취업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제로서의 관점으로 살펴보기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생산성과 임금효과를 높이고 만족스러운 직업지위를 획득하는 준비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학원 진학의 결정과정과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 정도를 파악한다면, 취업 유예 활동과 대비되는 인적자본 투자 관점에서 대학원교육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대학원 진학자들에게 대한 진학동기, 학교생활, 향후목표, 진로설계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김기현·미와사토시, 2007; 오창환·정철영, 2009; 채창균, 2007; Montgomery, 2002; Reimer & Pollak, 2005). 또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 다양한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표집방법과 수에 제약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실제 대학원에 진학한 4년제 대학생들을 표집하여 이들의 선택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대학생들에게 선택여부를 질의하는 방식의 연구가 대표적이다(오창환·정철영, 2009). 또한 대학원의 유형별 진학동기와 영향변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학원 전체로 결과를 환원하는 일반화의 오류(예, 김태형, 2011; 송창용·진미석·오호영·정재호, 2009; 이석열, 2007)도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대학원에 진학한 4년제 대졸자가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대졸자의 진학목적과 진로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전공, 지역, 개인특성에 따라 진학 대학원의 유형 및 각 유형별 진학선택의 목적, 준비행동, 영향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들의 향후 진로를 예측하고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진로지원 및 설계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및 정부차원에서 대학생의 진학과 관련한 결정을 사전에 예측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고급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선행연구 분석

### 1. 대학원 유형에 따른 특성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도래는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기능이 요구되면서 이를 담당할 대학원 교육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학원은 학교교육의 한 유형인 고등교육 가운데 최고 수준의 과정인 석·박사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새로운 지식

이 생성되는 고급 인적자원 양성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원을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일반대학원은 학술연구가 주된 교육목적이라면,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분야 인력의 양성과 실천적 연구개발,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한다(고등교육법 제 29조의 2).

<표 1> 대학원의 유형과 특징

구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목적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수업형태	주간	주간	야간, 계절제
학위과정	석사, 박사	석사(원칙), 학칙으로 박사과정 설치가능	석사
수여학위	학술학위	전문학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 수여 가능	전문학위
교육내용	학술이론 및 연구 방법론	실천적 이론 및 실무위주 교육	실천적 이론 및 실무교육
배출인력	연구 및 교수인력(R&D)의 양성	전문의(의사, 변호사 등) 인력의 양성	직업인의 계속교육

참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첫째, 일반대학원은 주간에 수업이 진행되며, 주로 원서 강독, 실험실습, 전공 관련 주제 토론 등을 바탕으로 하여 강의가 이루어진다. 학생은 전일제(full-time) 학생과 시간제(part-time) 학생으로 구분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간에 수업이 이루어진다. 일반대학원은 전문적인 학술기능인의 양성과 연구, 대학교원의 양성 등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석사 및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둘째, 전문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은 교육내용도 일반대학원이 학술이론, 연구 방법 등을 주로 하는 것과 달리 실천적 이론과 실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직업인의 계속교육을 담당하는 특수대학원보다 더 심도 있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전일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주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정 직업과 연계된 전문 분야의 현장 중심 기술과 지식 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위논문 제출하지 않고 전문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셋째,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계속교

육기관이다. 학부교육과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반대학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교육내용에 있어 실천적 이론 및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야간에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부 수준의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2. 대학원 진학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에서는 크게 대졸자의 대학원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과 가족 변인, 대학변인, 대학생활 변인, 대학원 유형별 변인 등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개인변인으로는 성별과 연령, 사회적 대우와 구직능력 등이 있다(Montgomery, 2002; Perna, 2004). 성별의 경우 개별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성별에 따라 대학원 진학여부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창균(2007)의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창환과 정철영(2009)은 이미 많은 교육단계를 통해 차별을 받은 학생들이 탈락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 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외국 연구(예, Perna, 2004; Bedard & Herman, 2008)에서도 성별에 따른 대학원 진학 차이가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대학원의 종류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Mullen, Goyett & Soares, 2003). 또한 연령변인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대학원 진학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오창환·정철영, 2009; Mullen, Goyett & Soares, 2003). 또한 김태형(2011)의 연구에서는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은 낮을수록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중 취업 애로 정도를 측정변수로 설정한 연구도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취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구직능력이 떨어질수록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형만, 2002; 진미석·김나라·윤형만, 2006; 오창환·정철영, 2009). 또한 Weiler(1994)의 연구에서는 대학시절 개인이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학원 진학과 졸업 후 진로 연구 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가족변인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 먼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연구결과가 상이하다. Mullen와 Goyette 그리고 Soares(2003)는 부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지만, Stolzenberg(1994)는 대학원 진학은 부모와 관련이 없는 학생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였다. 또한 국내의 김기현(2004)의 연구에서도 후기단계로 갈수록 가족변인의 효과는 꾸준히 낮아져 대학원 단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또 가족변인 중 부모의 소득수준을 언급하였는데, 가구소득은 자녀의 대학원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부모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와 투자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대학변인으로는 대학의 질적 수준이 진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Millett(2003)은 인적자본 이론에 근거하여 상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대학원에 진학할 비율이 높다고 제시하였으며, 채창균(2007)은 고용가능성으로 인해 지방대학생의 대학원 진학비율이 수도권 대학의 진학비율보다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의 질적 수준이 높은 상위학교로의 진학은 교육투자 대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능력 있는 개인의 진학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위계서열의 구조가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강한 효과가 있다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창환과 정철영(2009)의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영향력을 파악하지 못했고, 전공계열 역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상이하였다.

셋째, 대학생활 변인은 학점, 대학생활 만족도, 재학 중 근로경험, 취업준비행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업이 우수하다는 것은 학습능력이 높다는 것으로,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교육투자의 수익률이 높아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박주현, 1997). 대학생활 만족도의 경우, 대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대학원 진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Millett, 2003). 재학 중 근로경험은 취업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할 확률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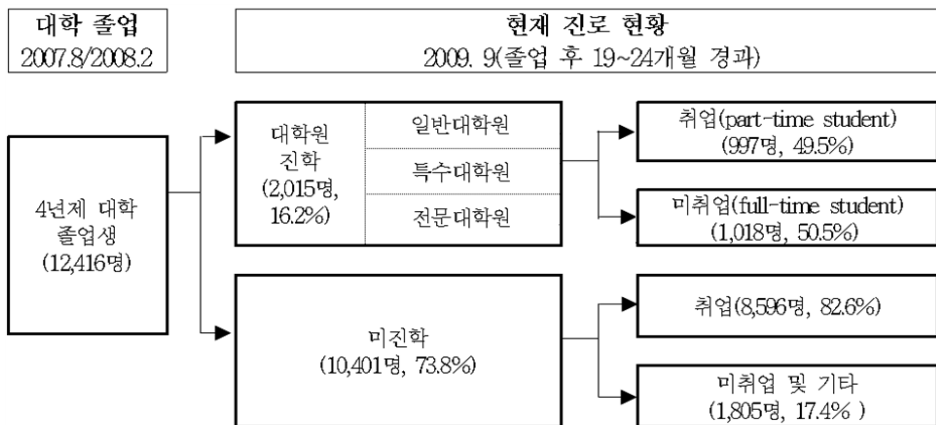
넷째, 대학원 유형 변인에 따른 진학동기와 학업 만족도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임수민(2008)은 남성과 여성 모두 직업과 관련한 기술적,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거나 배움 자체에 대한 흥미와 욕구로 특수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Montgomery(2002)의 연구에서는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비 및 적극적 입학조치(affirmative action in admission) 등과 같은 변인들은 대학원 진학동기와 상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한국고용정보원의 ‘2008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원자료를 추적한 2011년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2007년 8월과 2008년 2월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대상자들이 19~2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의 진로를 추적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sup>1)</sup>의 졸업 후 진로이동을 살펴보았다([그림 1] 참조). 4년제 대학 졸업자 총 12,416명 중 16.2%에 해당하는 2,015명이 2011년 당시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 대학원 진학자 중 49.5%인 997명은 취업상태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50.5%인 1,018명은 취업을 하지 않은 전일제 학생이었다. 미진학자들의 경우, 전체의 82.6%인 8,596명이 취업 중이었고, 17.4%는 미취업 등의 상태였다.

[그림 1]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진로 이동



1) 졸업 후 바로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전문대학 졸업생과 대학교육의 특수성을 지닌 교육대학 졸업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학원 진학자 중 남학생은 61.5%, 여학생은 38.5%였으며, 서울권 대학을 졸업한 대상자가 590명(29.3%)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전공은 공학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순이었다. 대학원생 중 49.5%에 해당하는 997명이 조사 당시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시간제 학생이었으며, 나머지 과반수는 전일제 학생이었다. 대학원 특성별로는 일반대학원 1,519명, 특수대학원 297명, 전문대학원 165명과 대학원 특성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는 응답자를 포함해 총 2,015명이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

<표 2> 연구대상 기초분석

		대학원 진학		대학원 미진학		전체	
		N	%	N	%	N	%
성별	남자	1,239	61.5	6,238	60.0	7,477	60.2
	여자	776	38.5	4,163	40.0	4,939	39.8
	전체	2,015	100	10,401	100	12,416	100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590	29.3	2,514	24.2	3,104	25.0
	경인권	499	24.8	2,220	21.3	2,719	21.9
	충청권	318	15.8	1,815	17.5	2,133	17.2
	영남권	439	21.8	2,523	24.3	2,962	23.9
	제주·호남권	169	8.4	1,329	12.8	1,498	12.1
	전체	2,015	100	10,401	100	12,416	100
전공계열	인문계열	313	15.5	1,366	13.1	1,679	13.5
	사회계열	201	10.0	2,461	23.7	2,662	21.4
	교육계열	126	6.3	731	7.0	857	6.9
	공학계열	572	28.4	2,909	28.0	3,481	28.0
	자연계열	465	23.1	1,512	14.5	1,977	15.9
	의약계열	92	4.6	413	4.0	505	4.1
	예체능계열	246	12.2	1,009	9.7	1,255	10.1
	전체	2,015	100	10,401	100	12,416	100
학비 조달 방법	장학금	381	18.9	900	8.7	1,281	10.3
	본인	158	7.8	801	7.7	959	7.7
	학자금 용자	214	10.6	1,163	11.2	1,377	11.1
	기타가족	1,262	62.6	7,537	72.5	8,799	70.9
	전체	2,015	100	10,401	100	12,416	100
현재 취업유무	미취업	1,018	50.5	1,805	17.4	2,823	22.7
	취업	997	49.5	8,596	82.6	9,593	77.3
	전체	2,015	100	10,401	100	12,416	100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추적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개인, 가족, 대학, 대학생활, 대학원 유형을 감안하여 영향변인들을 선별하였다. 활용된 설명변수는 성별과 연령 등 개인특성, 부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등 확인가능한 가족변인, 출신대학의 소재지, 전공계열, 학비조달 방법, 대학생활 만족도 등 대학의 일반적인 요인뿐 아니라 학점, 취업목표 설정, 재학 중 일자리 경험유무 등 대학 재학 중의 취업준비 행동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대학원 특성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원 유형에 따른 동일학교 여부 및 대학과의 전공일치도, 현재 취업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 3. 분석 방법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들을 토대로 변인들을 구성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빈도 분석, 교차분석, t-분석,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을 경우 Scheffe 사후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4년제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고, 판별분석을 통해 대학원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로는 SPSS 18.0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원 진학 차이

### 가. 개인 및 가족 특성에 따른 대학원 진학

개인적 특성에 따른 대학원 진학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대학원 진학여부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chi^2 = 1.615, p > .05$ ), 과거와 현재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대학입학 당시 가구소득

$\chi^2=38.546$ ,  $p<.01$ , 현재 가구소득  $\chi^2=54.289$ ,  $p<.01$ ). 부모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대학원 진학자 집단의 비율은 대학입학 당시 25.3%, 현재 가구소득 기준 26.9%였던 반면,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 미진학 집단의 경우 과거와 현재 소득 기준 각각 20.3%, 19.8%로 대학원 진학 집단에 비해 낮았다. 또한 나이와 부모의 교육연수 역시 대학원 진학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대학원 진학자의 평균연령은 26.8세로 미진학자 27.0세보다 낮았으며( $t=-1.998$ ,  $p<.01$ ), 대학원 진학자 부모의 교육연수(아버지=13.3년, 어머니=12.0년)는 미진학자 부모의 교육연수(아버지=12.4년, 어머니=11.2년)보다 모두 높았고,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아버지  $t=10.245$ ,  $p<.01$ , 어머니  $t=10.766$ ,  $p<.01$ ).

#### 나. 대학 특성에 따른 대학원 진학

졸업한 대학의 특성에 따른 대학원 진학여부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60.669$ ,  $p<.01$ ). 서울권(진학=29.3%, 미진학=24.2%), 경인권(진학=24.8%, 미진학=21.3%) 대학의 졸업생들은 사회진출보다는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충청권(진학=15.8%, 미진학=17.5%), 영남권(진학=21.8%, 미진학=24.3%), 호남권(진학=8.4%, 미진학=12.8%) 졸업생의 경우 대학원 미진학(사회참여)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전공계열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chi^2=245.513$ ,  $p<.01$ ), 예컨대 자연계열 전공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비율(진학=23.1%, 미진학=14.5%)은 사회계열 졸업생보다 높았다(진학=10.0%, 미진학=23.7%). 학비 조달 방법의 경우 대학시절 장학금 수혜를 받았던 학생의 18.9%가 대학원에 진학한 반면, 미진학 학생들 중 장학금 수혜자는 8.7%에 불과하였다( $\chi^2=195.619$ ,  $p<.01$ ). 대학의 지원 인프라 및 대학생활 만족도가 대학원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표 3〉 참조). 대학원 진학자는 교육 인프라 중 교육지원 시설과 학생지원제도 두 변인의 만족도가 높았고, 교육과정은 전공 커리큘럼, 교수능력 및 열의, 수업방식과 질 등 모든 항목에서 미진학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진학자의 졸업평점(평균 83.01)은 미진학 집단(평균 80.64)보다 높았다( $t=11.153$ ,  $p<.01$ ).

&lt;표 3&gt; 대학 교육인프라 교육과정 만족도에 따른 대학원 진학 차이

		진학 여부	N	M	SD	t
교육 인프라	교육지원 시설	진학	2015	3.29	0.94	4.499***
		미진학	10401	3.19	0.90	
	학생복지 시설	진학	2015	3.10	0.92	0.540
		미진학	10401	3.08	0.89	
	학생지원제도	진학	2015	3.17	1.04	2.221*
		미진학	10401	3.11	0.99	
상담 및 취업지원 시설	진학	2015	2.98	0.93	1.837	
	미진학	10401	2.94	0.92		
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 제도	진학	2015	2.92	0.94	1.912	
	미진학	10401	2.88	0.93		
교육 과정	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	진학	2015	3.45	0.92	8.146***
		미진학	10401	3.27	0.91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	진학	2015	3.66	0.96	10.326***
		미진학	10401	3.42	0.96	
	수업의 방식 및 질	진학	2015	3.47	0.89	8.306***
		미진학	10401	3.29	0.89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대학생 활에 따른 대학원 진학

대학시절의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및 수혜 경험에 있어서 대학원 진학자는 미진학자에 비하여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낮았다. 즉, 진학자의 경우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미진학자 36.0%, 진학자 28.8%)과 직장체험 프로그램(미진학자 20.6%, 진학자 17.2%)뿐 아니라 직업심리검사, 취업박람회,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캠프 등 대학에서 지원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이 모두 낮았는데, 이는 대학재학 시절부터 대학원 진학을 기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4>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석여부에 따른 대학원 진학 차이

구분		대학원 진학		미진학		전체		$\chi^2$
		N	%	N	%	N	%	
진로, 취업에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	예	580	28.8	3745	36.0	4325	34.8	38.785***
	아니요	1435	71.2	6656	64.0	8091	65.2	
직장체험프로그램 (인턴포함)	예	347	17.2	2141	20.6	2488	20.0	11.920**
	아니요	1668	82.8	8260	79.4	9928	80.0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예	748	37.1	4438	42.7	5186	41.8	21.357***
	아니요	1267	62.9	5963	57.3	7230	58.2	
교내 취업박람회	예	515	25.6	3217	30.9	3732	30.1	23.166***
	아니요	1500	74.4	7184	69.1	8684	69.9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예	338	16.8	2182	21.0	2520	20.3	18.446***
	아니요	1677	83.2	8219	79.0	9896	79.7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예	413	20.5	3123	30.0	3536	28.5	75.260***
	아니요	1602	79.5	7278	70.0	8880	71.5	
취업캠프	예	125	6.2	958	9.2	1083	8.7	19.172***
	아니요	1890	93.8	9443	90.8	11333	91.3	

\*p< .05, \*\*p< .01, \*\*\*p< .001

또한 이들은 개인적인 취업준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목표 설정(미진학자 66.5%, 진학자 46.7%), 재학 중 일자리경험(미진학자 80.0%, 진학자 73.8%), 직업훈련교육(미진학자 9.2%, 진학자 6.2%), 자격증 취득교육(미진학자 54.2%, 진학자 46.9%)에서도 미진학자의 참여율에 비하여 낮은 참여비율을 보였다. 다만 대학원 진학을 위한 영어시험 점수 취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취득률을 보이고 있었다( $\chi^2=66.532$ , p<.01).

<표 5> 대학재학 중 각종 취업준비 여부에 따른 대학원 진학 차이 분석

구분		대학원 진학여부						$\chi^2$
		대학원 진학		미진학		전체		
		N	%	N	%	N	%	
취업목표 유무	그렇다	940	46.7	6912	66.5	7852	63.2	284.811***
	아니다	1075	53.3	3489	33.5	4564	36.8	
재학 중 일자리 경험 유무	있다	1487	73.8	8317	80.0	9804	79.0	38.645***
	없다	528	26.2	2084	20.0	2612	21.0	
영어 시험 점수 취득 여부	있다	980	48.6	4045	38.9	5025	40.5	66.532***
	없다	1035	51.4	6356	61.1	7391	59.5	
직업훈련교육 여부	있음	125	6.2	961	9.2	1086	8.7	19.493***
	없음	1890	93.8	9440	90.8	11330	91.3	
자격증취득 여부	있음	946	46.9	5633	54.2	6579	53.0	35.229***
	없음	1069	53.1	4768	45.8	5837	47.0	

\*p< .05, \*\*p< .01, \*\*\*p< .001

## 라. 대학원 진학여부에 따른 현재 일자리 차이

사회참여의 대체수단으로 대학원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학여부에 따른 취업여부 및 일자리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대학원 진학자 중 49.5%인 997명이 취업해 있어 과반수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시간제 학생일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미진학자는 82.6%에 해당하는 8,596명이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 진학자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48.9%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응답이 나타나, 현재 소속 대학교의 조교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표 6> 대학원 진학여부에 따른 일자리 특성의 차이 분석

구분		대학원 진학여부						$\chi^2$
		대학원 진학		미진학		전체		
		N	%	N	%	N	%	
취업 여부	취업	997	49.5	8596	82.6	9593	77.3	1057.009 ***
	미취업	1018	50.5	1805	17.4	2823	22.7	
	전체	2015	100	10401	100	12416	100	
정규/비 정규직	비정규직	716	77.2	2525	30.6	3241	35.3	790.224 ***
	정규직	212	22.8	5719	69.4	5931	64.7	
	전체	928	100	8244	100	9172	100	
현 직장 일자리 형태	민간회사	245	24.7	6082	71.0	6327	66.2	1761.079 ***
	외국인 회사	6	0.6	345	4.0	351	3.7	
	정부투자/출연기관	62	6.3	326	3.8	388	4.1	
	법인단체	106	10.7	412	4.8	518	5.4	
	정부기관	37	3.7	612	7.1	649	6.8	
	교육기관	485	48.9	639	7.5	1124	11.8	
	연구기관	9	0.9	12	0.1	21	0.2	
	회사소속 아님	34	3.4	93	1.1	127	1.3	
	기타	8	0.8	50	0.6	58	0.6	
	전체	992	100	8571	100	9563	100	

\* $p < .05$ , \*\* $p < .01$ , \*\*\* $p < .001$

## 2. 4년제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여부 결정요인

4년제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 및 가족변수, 학교변수, 대학생활 변수를 독립변수로, 대학원 진학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및 집단 분류의 정확도는 다음 <표 7>과 같다. 모형은 개인 및 가족변수만으로 구성한 제1모형, 학교변수를 추가한 제2모형과 개인

의 취업관련 준비행동을 모두 포함한 3개의 모형을 구성하여 비교해 보았다. 대학원 진학여부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들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및 가족변수에 따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나이가 적을수록 대학원 진학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고, 부모의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고 있었다. 대학변인에 의하면, 서울 소재의 대학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충청, 영남, 제주 등 지방보다 높았으며, 인문사회계열에 비하여 다른 모든 전공계열 전공자들이, 또한 가족의 지원으로 학비를 충당한 경우보다 장학금이나 본인 스스로 학비를 충당한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고 있었다. 대학생 중 전공교수진 능력, 열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점과 영어성적이 있는 경우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였으며, 취업목표, 재학 중 직업경험, 실제 직업훈련 참여경험, 자격증 취득준비를 한 학생들은 진학보다는 사회진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노력 결과는 재학 중 취업관련 학점취득, 취업박람회 참가, 면접 및 이력서 컨설팅에 참여 학생의 미진학 선택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표 7> 4년제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B	S.E.	B	S.E.
개인 및 가족 변인	성별(여성=0, 남성=1)	0.420***	0.066	0.378***	0.070	0.439***	0.071
	나이	-0.112***	0.017	-0.098***	0.017	-0.097***	0.016
	대학입학 당시 부모소득	-0.021	0.025	-0.015	0.026	-0.001	0.027
	현재 부모소득	0.041	0.023	0.044	0.024	0.031	0.025
	부 교육연수	0.038***	0.010	0.035**	0.010	0.031**	0.011
	모 교육연수	0.058***	0.012	0.050***	0.012	0.043***	0.012
대학 변인	지역 (더미= 서울권)	경인·강원권		0.017	0.074	0.021	0.077
		충청권		-0.283**	0.084	-0.265**	0.087
		영남권		-0.258**	0.078	-0.216***	0.081
		제주·호남권		-0.534***	0.104	-0.571***	0.108
	전공 (더미= 인문사회 계열)	교육계열		0.243*	0.117	0.356**	0.121
		공학계열		0.447***	0.073	0.489***	0.076
		자연계열		0.922***	0.077	0.971***	0.080
		의약계열		0.581***	0.133	0.587***	0.138
		예체능계열		0.693***	0.093	0.638***	0.097
	학비조달 방법 (더미=가족)	장학금		0.953***	0.076	0.778***	0.081
		본인		0.468***	0.111	0.497***	0.114
		학자금 융자		0.123	0.088	0.159	0.091
	학교생활 만족도 (5점 만점)	교육지원 시설		0.067	0.042	0.075	0.044
		학생복지 시설		-0.117**	0.043	-0.145**	0.044
		학생지원제도		-0.044	0.033	-0.054	0.034

<표 계속>

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B	S.E.	B	S.E.		
대학 변인	학교생활 만족도 (5점 만점)	상담, 취업지원 시설			-0.024	0.048	0.026	0.050	
		진로관련 상담			-0.006	0.048	-0.009	0.050	
		전공 커리큘럼, 내용			0.070	0.043	0.057	0.045	
		전공교수진 능력, 열의			0.224***	0.046	0.241**	0.048	
		수업의 방식 및 질			0.005	0.050	-0.024	0.052	
대학 생활 변인	개인 노력 (없다=0, 있다=1)	졸업평점(백분율)					0.039***	0.004	
		취업목표 유무					-0.793***	0.056	
		직업경험 유무					-0.205**	0.065	
		영어점수 취득 유무					0.347***	0.058	
		교육훈련 참여 유무					-0.219*	0.109	
		자격증 취득 유무					-0.229***	0.056	
	학교 지원 참여 (없다=0, 있다=1)	진로, 취업에 관해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						-0.193**	0.066
		직장체험(인턴 포함)						-0.124	0.074
		인·적성 직업심리검사						0.016	0.064
		교내 취업박람회						-0.160*	0.069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0.067	0.081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0.289***	0.077
		취업캠프						-0.092	0.116
		기타						-0.374	0.490
상수		-0.183***	0.437	-1.519***	0.475	-3.837***	0.557		
-2LL		9879.477		9414.817		8891.688			
X <sup>2</sup> (절편모형-이론모형)		208.515 (df=6,p=.001),		667.053 (df=26,p=.001),		1166.448 (df=40,p=.001)			
Cox와 Snell R <sup>2</sup>		0.018		0.0572		0.098			
Nagelkerke R <sup>2</sup>		0.030		0.097		0.166			

### 3. 대학원 특성별 진학 차이

#### 가. 개인 및 가족 특성과 대학원 유형별 진학

개인적 특성에 따라 대학원 유형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특수대학원(50.8%)이나 전문대학원(46.7%) 진학비율보다 일반대학원(65.4%) 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 전문대학원(53.3%) 비율이 타 대학원(일반대학원: 34.6%, 특수대학원: 49.2%)보다 높았다( $\chi^2=39.237$ ,  $p<.01$ ). 가구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chi^2=26.905$ ,  $p<.01$ ), 전문대학원 진학자들의 경우 대학입학 당시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33.4%로 다른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생의 가구소득보다 높았으며, 현재 가구소득 역시 전문대학원생의 월 부모소득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chi^2=18.693$ ,  $p>.01$ ). 연령의 경우, 특수대학원 학생은 27.9세로 일반대학원( $M=26.7$ )이나 전문대학원( $M=26.5$ )보다 높았으며( $F=11.258$ ,  $p<.01$ ), 전문대학원생의 부모 교육연수는 아버지(14.4년)와 어머니(13.2년) 모두 일반대학원(아버지=13.3년, 어머니=11.9년)과 특수대학원(아버지=12.9년, 어머니=11.6년) 부모 교육연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아버지  $F=8.657$ ,  $p<.01$ ; 어머니  $F=12.673$ ,  $p<.01$ ).

#### 나. 대학 특성과 대학원 유형별 진학

대학원 유형, 학교 소재 지역, 전공계열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소재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chi^2=12.550$ ,  $p>.05$ ), 전공별 차이는 나타났다( $\chi^2=203.219$ ,  $p<.01$ ).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졸업생들의 경우, 특수대학원(공학전공=9.4%, 자연전공=10.8%)보다는 전문대학원(공학전공=33.2%, 자연전공=26.0%)이나 일반대학원(공학전공=20.6%, 자연전공=21.2%)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문계열(특수=30.3%, 일반=11.8%, 전문=20.0%)과 예체능계열(특수=23.9%, 일반=9.6%, 전문=10.9%), 교육계열(특수=10.8%, 일반=5.3%, 전문=6.1%) 졸업자의 경우 특수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았다. 대학시절 장학금 수혜자들은(일반=19.7%, 특수=14.5%, 전문=18.8%) 일반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학비를 조달했던 학생들은 특수대학원(특수=14.5%, 일반=7.0%, 전문 6.1%) 진학 비율이 가장 높았다( $\chi^2=17.689$ ,  $p<.01$ ).



## 다. 대학생 활과 대학원 유형별 진학

대학원 진학 시 동일 학교로의 진학이나 동일 전공으로의 진학여부는 우수한 인재의 교육역량 확보 및 대학의 우수인재 보유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분석 결과, 대학원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출신 학부 같은 동일 학교 진학 비율이 66.8%인 데 반해,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동 대학원 진학 비율이 30%로 낮았으며, 전공일치도 역시 다른 대학원에 비해 일반대학원 진학 학생들의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의 일치 비율이 높았다. 일반대학원의 전공일치도는 5점 만점의 평균 4.28로 특수대학원의 평균 3.69나 전문대학원의 평균 3.25보다 높았으며, 전문대학원의 전공일치도는 다른 대학원 유형보다 가장 낮았다( $F=83.559$ ,  $p<.01$ ). 졸업평점 백분율의 경우, 일반대학원은 평균 82.51( $SD=8.16$ ), 특수대학원은 평균 84.51( $SD=7.90$ ), 전문대학원은 평균 83.45( $SD=8.07$ )로 나타났다.

<표 8> 대학원 유형에 따른 출신학교 진학비율 및 전공일치도

구분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전체		$\chi^2$
		N	%	N	%	N	%	N	%	
동일 학교 진학	그렇다	1015	66.8	118	39.7	58	35.2	1191	60.1	122.845***
	아니다	504	33.2	179	60.3	107	64.8	790	39.9	
	전체	1519	100	297	100	165	100	1981	100	
전공 일치	완전히 상이	69	4.5	35	11.8	34	20.6	138	7.0	181.972***
	조금 상이	46	3.0	11	3.7	6	3.6	63	3.2	
	조금 연관	183	12.0	62	20.9	45	27.3	290	14.6	
	많이 유사	309	20.3	92	31.0	44	26.7	445	22.5	
	완전히 동일	912	60.0	97	32.7	36	21.8	1045	52.8	
	전체	1519	100	297	100	165	100	1981	100	

\* $p<.05$ , \*\* $p<.01$ , \*\*\* $p<.001$

## 라. 대학원 유형별 진학 결정요인 분석

대학원 유형별 진학 특성을 판별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원의 특성을 잘 판별할 수 있는 판별함수를 도출하고,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Wilks의 람다가 최소가 되게 하는 단계적 판별분석 방법을 선택하였다. 대학원 유형별 분류함수 계수는 다음과 같다. 각 대학원 유형은 각 산출된 분류점수에서 가장 큰 값

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분류된다. 즉, 학부와의 전공일치가 높으면 일반대학원, 나이가 많고, 졸업학점이 높으면 특수대학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고, 학생지원제도에 만족정도가 높으면 전문대학원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표 9> 대학원 유형의 분류 함수계수

일반대학원	=	-146.125+5.110(나이)+2.264(모 교육연수)+1.290(졸업평점 백분율)+1.521(학생지원제도)+4.021(전공 일치도)
특수대학원	=	-149.461+5.213(나이)+2.253(모 교육연수)+1.328(졸업평점 백분율)+1.394(학생지원제도)+3.526(전공 일치도)
전문대학원	=	-146.064+5.092(나이)+2.361(모 교육연수)+1.309(졸업평점 백분율)+1.693(학생지원제도)+3.250(전공일치도)

도출된 판별함수에 의해 일반대학원의 경우 64.8%, 특수대학원의 경우 35.5%, 전문대학원의 경우 55.2%의 대학원 유형이 정확하게 분류되어 전체적인 정확도는 59.6%로 나타났다. 특수대학원 분류 정확도가 다소 낮게 나왔는데, 이는 설명변수로 작용하는 요인 중 특수대학원을 대변할 수 있는 뚜렷한 특성을 가진 변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표 10> 대학원 유형의 분류정확

유형			예측 소속집단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전체	
원래 소속 집단	일반대학원	N	982	250	283	1515	
		%	64.8	16.5	18.7	100	
	특수대학원	N	107	105	84	296	
		%	36.1	35.5	28.4	100	
	전문대학원	N	46	28	91	165	
		%	27.9	17.0	55.2	100	
	전체 정확 분류			59.6%			

특수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유형에 따른 진학결정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1> 참조). 특수대학원 진학생들은 다른 대학원 진학생에 비하여 나이가 많았고,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에 비하여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전공자의 특수대학원 진학은 (-)영향을 보였으며, 영어성적을 획득한 학생들의 특수대학원 진학가능성도 낮은 것(-영향)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대학원 진학생들의 진학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문대학원 진학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어머

니의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전문대학원 진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공학계열 전공자들은 전문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보여, 이들은 이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으로 진학을 선호할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판별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 대학원 유형에 따른 진학요인 분석 -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유형

변인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B	S.E.	B	S.E.	
개인 및 가족변인	성별(더미=여성)	-0.280	0.164	-0.559**	0.204	
	나이	0.079***	0.028	0.017	0.038	
	대학입학 당시 부모소득	-0.005	0.070	0.021	0.088	
	현재 부모소득	-0.015	0.065	0.030	0.082	
	부 교육연수	-0.011	0.027	0.025	0.035	
	모 교육연수	-0.010	0.030	0.078*	0.039	
대학변인	지역 (더미= 서울권)	경인·강원권	0.182	0.207	0.143	0.239
		충청권	0.470*	0.226	-0.185	0.305
		영남권	0.002	0.221	0.132	0.260
		제주·호남권	-0.147	0.309	-0.543	0.439
	전공 (더미= 인문사회 계열)	교육계열	0.043	0.262	-0.236	0.397
		공학계열	-1.639***	0.251	-0.540*	0.274
		자연계열	-1.337***	0.232	-0.373	0.254
		의약계열	-1.298**	0.426	0.177	0.368
		예체능계열	0.110	0.205	-0.520	0.316
	학비조달 방법 (더미=가족)	장학금	-0.310	0.218	-0.111	0.251
		본인	0.127	0.276	-0.044	0.409
		학자금 용자	-0.549*	0.269	0.217	0.314
	학교생활 만족도 (5점 만점)	교육지원 시설	-0.237*	0.112	-0.032	0.137
		학생복지 시설	0.152	0.115	0.011	0.138
		학생지원제도	-0.065	0.093	0.300**	0.112
		상담, 취업지원 시설	-0.010	0.134	-0.138	0.156
		진로관련 상담	-0.024	0.132	-0.063	0.157
전공 커리큘럼, 내용		0.109	0.118	0.091	0.143	
전공교수진 능력, 열의		-0.151	0.132	-0.263	0.160	
수업의 방식 및 질	0.042	0.141	0.193	0.173		

(표 계속)

변인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B	S.E.	B	S.E.
대학 생활 변인	개인 노력 (없다=0, 있다=1)	졸업평점(백분율)	0.011	0.010	0.005	0.012
		취업목표 유무	0.410	0.152	0.113	0.186
		직업경험 유무	-0.002	0.176	-0.365	0.196
		영어점수 취득 유무	-0.590***	0.165	0.048	0.193
		교육훈련 참여 유무	0.070	0.292	0.226	0.367
		자격증 취득 유무	0.159	0.150	-0.045	0.182
	학교 지원 참여 (없다=0, 있다=1)	진로, 취업에 관해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	0.158	0.180	-0.119	0.230
		직장체험(인턴포함)	-0.439*	0.220	-0.016	0.249
		인·적성 직업심리검사	0.179	0.175	-0.325	0.223
		교내 취업박람회	-0.360	0.206	-0.065	0.237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0.195	0.215	0.324	0.273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0.274	0.214	-0.117	0.284
		취업캠프	-0.456	0.377	-0.067	0.447
		기타	0.243	1.240	-18.741	1.217
		상수	-3.165*	1.279	-4.327**	1.637
-2LL			1261.014		949.860	
$X^2$ (절편모형-이론모형)			238.336 (df=40, p=.001),		66.477 (df=40 p=.001),	
Cox와 Snell $R^2$			0.123		0.036	
Nagelkerke $R^2$			0.219		0.084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 진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학원에 진학한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비진학자들에 비해 연령이 낮고 가구소득이 높았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사회참여를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현상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나 투자요구가 높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김기현, 2004; 채창균, 2007) 결과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대학원 진학자들의 대학생활 및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해 보면, 진학생들은 학점 및 영어성적은 미진학자들에 비하여 높았으나, 대학재학 중 취업준비활동 참여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들이 대학원 진학을 미리 계획하고 학업에만 충실했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재학 중 진로결정 수준이나 준비가 늦어져 취업능력이 떨어질 경우 졸업 후 미취업이나 실업상태로 남을 확률이 높고, 이러한 잠재된 실업상태의 유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문적 연구보다는 직업능력 개발 및 인맥형성 수단으로의 커리어 개발의 과정으로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진로준비도, 전공학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 실업유보의 수단으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교육투자 비용의 손실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의 질 저하, 궁극적으로는 국가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청년 고급인력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전망, 그리고 고급인력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원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특수대학원 재학생의 연령이 다른 대학원 진학생에 비하여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이미 직업을 가진 학생들이 계속적인 학업욕구 및 자기개발, 직무능력 향상의 측면에서 대학원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석열, 2007). 대

학원 유형에 따른 취업유무나 취업형태에서도 현재 취업 중인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대학원 진학을 통해 학문적 연구의 목적보다는 현재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의 커리어 개발 등 현실적인 요구가 높을 것이다. 즉, 각 대학원의 설립 목적 및 진학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커리큘럼 및 교수지도가 개발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청년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주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원생의 경우,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 등 가족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부모의 학력은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와 지원 정도를 강화시키고,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넷째, 전공유형에 따라서는 예체능계열, 인문계열 및 교육계열의 경우 특수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졸업 후 실업 유보, 취업, 인맥 형성 등을 위해 진학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공학 및 자연계열의 경우 일반대학원 진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아 전공공부를 계속하기 위한 진학이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학부 졸업 대학과 대학원의 학교 및 전공일치도가 높은 점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즉, 전문기술자 및 연구 인력에 대한 요구가 많은 이공계열의 경우 국가 및 학교 차원에서 학부단계에서부터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와 석사 연계과정, 연구중심의 커리큘럼 개발 및 연구실 실습제공, 대학원 체험 등의 다양한 전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진로개발 방법을 체계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전문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특화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은 출신대학과 전공을 변경하여 진학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진학자들의 학부전공이 주로 생물학이나 화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유사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해당 대학원이 설치된 학교들은 학부의 법학과를 폐과하여 다른 전공이 입학할 확률이 높다는 점과 같은 맥락이다.

다섯째, 대학원 진학요인 중 학교생활 관련 만족도 중 '대학교수의 능력과 열의'는 대학원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었다. 즉, 대학교수의 능력은 여전히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학원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교수인력의 질 관리 역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교수평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잘 가르치는 대학교수를 확보함으로써 조기에 우수인재를 대학원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원 진학 연구에 관한 다양한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은 연구의 주된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고급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해 국가와 학교 차원에서의 연구 및 정책이 개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패널 자체가 대졸자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설문구성 및 변수 설정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실제 대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의 원인 및 향후 진로계획을 분석해 내지 못한 점은 본 논문의 한계라 하겠다. 따라서 향후 좀 더 발전된 연구를 위해서는 대학원생 대상 전문 패널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박사과정 졸업자 조사 외에 석사과정 졸업자 조사를 부가하여 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 사회적 계층이동과 같은 주제하에 대학원 유형별 진학자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적인 지원책과 질 관리 방안들을 마련하여 대학원 교육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순희·윤석천·박성준(2011). 『한국의 인적자본투자 성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현·미와사토시(2007). 『교육정책이 사회계층간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기현(2004). 「가족 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8집 제5호, 109~142쪽, 한국사회학회.
- 김태형(2011). 「출신대학 특성이 대학원 진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형만(2002). 『전문대학·대학 졸업생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주현(1997). 「대졸 여성인력의 취업 및 진학 요인 분석」, 『동덕여성연구』, 제2권, 33~58쪽.
- 삼성경제연구소(2010).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학교육 혁신방안』, SERI 연구보고서.
- 서울대(2010). 『대학생활 의견조사』,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 송창용·진미석·오호영·정재호(2009). 『2009년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구축: 박사패널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창환·정철영(2009).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의 대학원 진학 선택 결정 요인」, 『한국농업교육학회논문집』, 제41집 제4호, 199~218쪽, 한국농업교육학회.
- 이석열(2007). 「특수대학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 제34권 제2호 통권71호, 373~397쪽, 충남대학교.
- 임수민(2008). 「직장인의 특수대학원 학습참여가 생활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진미석(2006). 「석사학위자들의 진로경로와 학위효용가치 인식을 통해 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기능」, 『한국교육학연구』, 제44권 제2호, 135~159쪽, 한국교육학회.
- 진미석·김나라·윤형한(2006). 『2006년 미래의 직업세계: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2007). 『청년패널 종합분석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교육개발원(2010). 『교육통계연보』.



- Bedard, K. & Herman, D. A.(2008). “Who goes to graduate/professional school? The importance of economic fluctuations, undergraduate field, and ability”,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27, pp. 197~210.
- Montgomery, M.(2002). “A nested logit model of the choice of a graduate business school”,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21 No.5, pp. 471~480.
- Millett, C. M.(2003). “How undergraduate loan debt affects application and enrollment in graduate or first professional school”,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74 No.4, pp. 386~427.
- Mullen, A. L., Goyette, K. A. & Soares, J. A.(2003). “Who goes to Graduate School? Social and academic correlates of educational continuation after college”, *Sociology of Education*, Vol.76, pp. 143~169.
- Perna, L. W.(2004). “Understanding the decision to enroll in graduate school: Sex and racial/ethnic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75 No.5, pp. 487~527.
- Reimer, D. & Pollak R.(2005). “The impact of social origin on the transition to tertiary education in West Germany 1983 and 1999”, *Arbeitspapiere-Working Papers* No.85, University of Mannheim, Mannheim Centre for European Social Research.
- Stolzenberg, R. M.(1994). “Educational Continuation by College Gradu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9, pp. 1042~1077
- Weiler, W. C.(1994). “Expectations, undergraduate debt and the decision to attend graduate school: simultaneous model of student choice”,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13 No.1, pp. 29~41.

abstract

---

## Identifying the Determinant Factors Influencing University Graduates' Entrance To Graduate Schools

Lee Youngmin

Lim Jungyou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 factors that impacted on university graduates' entrance to graduate schools, using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of KEIS. We analyzed 2,015 graduates who moved to three types of graduate schools, which means general graduate school, special graduate school, and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by demographic and family characteristics, male students who had higher degree and educational years of parents in highly income family were more likely to enter graduate schools. Second, by university characteristics, students who gradua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majored in science and technology, received the scholarships were more likely to enter graduate schools. Third, depending on the types of graduate school, gender, income, age, and major series have impacted the entrance of students and what types of graduate school they entered.

**Key word:** Graduate School Entrance, Determinant Factors of Entrance, General Graduate School, Special Graduate School, Professional Graduate School